전주대사습놀이 대통령상 서진희씨

판소리 '심청가' 중 '상여 나가는 대목' 열창… 판소리 명창부 장원 차지

국악 분야 최고 등용문인 '제49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서진희 씨(40·전북 전주)가 영예의 판소리명창부 장원을 차지했다.

국악 분야 최고 등용문인 '제49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서진희 씨(40·전북 전주)가 영예의 판소리명창부 장원을 차지했다.

부문별 장원자는 △농악부 김천농악단(신대원 외 33명)(국회의장상) △무용 명인부 김기석(국무총리상) △민요 명인부 김유리(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가야금병창부 명인부 이윤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기악부 최민석(문화방송사장상) △무용 일반부 김도현(전주시장상) △판소리일반부 이세영(전라북도지사상) △시조부 박재우(문화방송사장상) △고법 일반부 강성준(전주시장상) △판소리 신인부 서병수(전주시장상) △고법 신인부 정은진(전주시장상) △활쏘기부 정수영(전라북도지사상)으로 각각 선정됐다.

앞서 지난 4일 진행된 학생대회에서는 △판소리부 유송은(교육부장관상) △농악부 평택오성중(대상문화재단이사장상) △관악부 이근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현악부 박고은(문체부장관상) △무용부 서민영(문체부장관상) △고법부 최재훈(문체부장관상) △민요부 이경민(전라북도지사상) △가야금병창부 김윤진(전라북도지사상) △시조초등부 추시은(전라북도교육감상) △판소리초등부(고학년) 노규리(전라북도교육감상) △판소리초등부(저학년) 임사랑(전라북도교육감상) 학생이 장원으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올해 제49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와 제41회 학생전국대회는 지난달 19일 무용 일반부 대회를 시작으로 이날 본선대회까지 총 18일간 국립무형유산원을 비롯해 전주대사습청, 전주향교, 천양정, 전주시청 강당 등에서 치러졌다.

특히 올해 전국대회는 전통국악 창작무대와 대사습놀이 장원자 무대 등 다양한 내용의 축하공연도 함께 기획돼 전주대사습놀이가 솜씨를 뽐내는 경연대회임과 동시에 축제의 장임을 공고히 했다.

여기에, 국악계 최고의 대회인 만큼 블라인드 심사를 도입하고, 판소리 명창부에 지정고수제를 적용하는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한 변화도 시도됐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국악계의 큰 기둥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올해 대사습놀이는 마무리되었지만, 이후로 마당창극 상설공연과 판소리 완창 무대와 같은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전주시를 방문해 즐기다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도립국악원 박미선 교수 완창무대

10일 국립민속국악원 판소리마당서 '미산제 흥보가'

국립민속국악원이 오는 10일 판소리마당 '소리 판' 무대를 통해 박미선의 미산제 흥보가 완창무대를 3시간 동안 선보인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에서 열리는 판소리마당 '소리 판' 완창무대는 판소리 완창 공연의 정착과 판소리의 계승·보존, 그리고 판소리 대중화에 힘을 보태고자 2020년부터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시작한 대표적인 기획공연이다.

이번 완창무대의 주인공인 전라북도립국악원 교육학예실 박미선 교수는 전북 무형문화재 판소리 수궁가 보유자였던 고(故) 박복남 명창의 딸로 1992년 전라북도립국악원 창극단에 입단해 춘향전, 심청전, 시집가는 날 등 여러 작품에서 주요 배역을 도맡았다.

박 교수는 지난해 전북도 인물대상에서 문화예술부문 대상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연수생들에게 전통음악을 전승하고 판소리 보존 및 후진 양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박초월, 최난수로 이어져 내려오는 '미산제 흥보가'는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의 교훈을 담은 판소리로, 슬프고 애타는 느낌을 주는 계면 위주의 애원성으로 정평이 나 있다.

중학교 시절 판소리에 입문해 최난수 명창과 이난초 명창에게 사사한 박미선은 완창을 10년 만에 다시 선보일 준비를 하며 수행하는 자세로 돌아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소리로 이번 무대를 완성하려고 한다.

고수는 박 교수의 동생이자, 현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수궁가 전승교육사인 박천음이 함께한다.

/뉴시스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전주 방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전시행사 중 '주한대사서예전' 참여

2023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참여 작품 준비를 위해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영국대사가 지난 5일 전주를 찾았다.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영국대사는 제14회 2023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전시행사 중 '주한대사서예전'에 참여했다.

이날 콜린 크룩스 대사는 덕진공원 내 연화루에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행사에 대한 소개를 듣고 집행위원장의 한글 서예시연을 접한 후, 자신의 필체로 서예작품을 창작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주한대사초청전을 준비하기 위해 조직위원회에서는 전문서예가들이 직접 주한대사관을 방문해 한국서예를 알리고 2023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홍보했다.

이에 콜린 크룩스 영국대사가 있는 서예의 본향 전주를 직접 방문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기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특히 콜린 크룩스 대사가 우리의 전통 필기도구인 붓과 전주한지를 활용해 라틴어와 영어로 쓰는 서예 뿐 아니라 한글서예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한편 제14회 2023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행사가 오는 9월 22일 개막된다. 이번 38개 행사 중 하나인 '주한대사초청전'은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예가 한자문화권 나라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세계문자로 창작 될 수 있는 세계인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장은성 기자

고창문화도시센터, 지역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추진

고창문화도시센터(센터장 이문식)가 2023년 고창문화도시 '치유문화도시로 가는 고창다움 컨셉형 예술창작 콘텐츠 발굴' 신청자 모집에 나섰다.

2023년 치유문화도시 생태계 실현 사업으로 추진하는 '치유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은 고창을 거주지로 활동하고 있는 (5인이상 1팀구성) 지역 문화예술인과 예술창작동아리 대상으로 15개 팀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국악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전시공연(축제) △기타 문화예술로 선정시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접수는 16일까지 (재)고창문화관광재단, 고창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치유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은 고창 브랜드이미지 확산을 위한 작품 결과물 전시 공유 등 지속 가능한 치유문화예술 축제로 발현되며 예술단체의 지속성 기반마련 및 전문성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창=김영식 기자